

무용교육학(Dance Pedagogy)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 시계열 관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영¹, 홍애령^{2*}

¹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²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Exploring the Academic Identity of Dance Pedagogy :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ime Series Analysis

Ji-Young Kim¹, Ae-Ryung Hong^{2*}

¹Professor, Division of Dance Arts, Sangmyung University

²Research Professor, G-ACE, Sangmyu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실행중심 무용교육의 패러다임에 관한 비판적 접근을 바탕으로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무용교육은 1955년 교육부에서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무용으로서 6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무용교육학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이 견고하지 못하다. 전통적인 무용교육은 실행중심 패러다임에 따라 지나치게 교사중심, 실기기능중심, 연습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지역사회, 전문 분야에서 무용교육학은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시계열 관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무용교육연구의 각 구간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무용교육연구는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었다. 제1구간(1968~1979)은 체육학을 기반으로 한 무용교육의 실천, 제2구간(1980년~1989년)은 초등교육을 위한 창작 기반의 움직임 교육, 제3구간(1990년~1999년)은 교급별 무용교육과정의 체계화, 제4구간(2000년~2009년)은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등장, 제5구간(2010년~2019년)은 교육실천과 학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합학으로서 무용교육학, 학제간 실천 및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주제어 : 무용교육학, 학문적 정체성, 실행중심 패러다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계열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ritically explore the academic identity of dance education as a paradigm of practice-based education. Dance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school dance since the first curriculum was designed, which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55. Although Korea's dance education has 65 years of history, its academic identity as a dance education is not very strong. Traditional dance education was teacher-centered, skills-oriented, and exercise-oriented by following the practice-based paradigm. Recently, an initiative was taken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dance education in schools,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fields. This study followed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each section of dance education research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e first section (1968-1979) is a practice of dance education based on physical education; the second section (1980-1989) is a creative-based movement education for primary education; the third section (1990-1999) is a systematization of dance education courses by class; the fourth section (2000-2009) is a paradigm for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the fifth section (2010-2019) consisted of various educational practices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efforts are requested to establish an academic identity that can support dance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actice, and research.

Key Words : Dance Pedagogy, Academic Identity, Practice-Based Paradigm, Keyword Network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B8058996)

*Corresponding Author : Ae-Ryung Hong(innodance@naver.com)

Received June 10, 2019

Revised July 26,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배운지 65년의 세월이 지났다. 1955년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체육 교과과의 일부로서 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명칭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표현활동으로 변경되어 체육 교과과의 한 가지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공무용으로는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국내 첫 무용과가 창설되어 57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1972년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1999년 용인대학교 박사과정이 개설되면서 무용학 학위논문 및 학술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1, 2]. 현재로서는 전문무용교육이 전체 무용학과 무용교육의 주된 관심사이지만, 실제로는 학교무용이 전문무용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셈이다. 그러나 무용은 무용수들을 위한 교육, 즉 전문무용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며 학문적으로 연구, 논의된 역사가 타 학문분야에 비해 매우 짧다. 국내 무용학 연구는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연구실에서 ‘무용생활안의 작성과 지도요점’이라는 논문을 한국체육학회지에 발표한 것이 최초로 보고된다[3]. 초기의 무용학은 체육학의 학문체계와 개념들에 기초하여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세부학문 분야 역시 기본개념과 학문구조에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체육학이 복합학과 응용학으로 세부학문 분야가 분류되고 독립학문으로 성장시켜 온 것에 비해, 무용학은 세부학문으로써 무용교육학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이는 무용학의 학문분류체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2016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예술체육학(대분류)-무용(중분류)-무용교육(소분류)’, 그리고 영문표기로도 ‘무용교육학(Dance Pedagogy)’이 아닌 ‘무용교육(Dance Education)’으로 명시되어 있다[4]. 소분류에는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비평, 무용인류학, 무용보, 움직임분석, 무용치료, 무용심리학, 무용사회학, 무용기능학, 안무, 기타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에서 무용교육은 무용교육학이 아닌 현상 혹은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무용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 무용교육학의 입지는 견고하지 못하다[5-7].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무용교육은 교사중심, 실기 기능중심, 연습중심으로 행해져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무용교육의 방식은 실행중심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초기의 무용교육연구에서 주목한 주제들은

초등무용, 교육무용의 실태조사, 문제점, 지도방향, 기초교육을 위한 동작 지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무용교육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무용교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첫째, 학교무용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후, ‘표현활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8]. 둘째, 전문무용은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대대적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무용학과로서의 존재 위기, 융복합 전공으로의 통합합, 졸업생의 진로교육 및 취업률 강화 등의 난제를 겪고 있다[9]. 셋째, 생활무용은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누리려는 참여자들로 인해 순항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댄스의 활성화를 맞이했다[10]. 이 시점에 다양한 무용교육의 현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와 현장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문적 체계성이 요청된다.

무용교육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무용교육학이 어떠한 연구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분야 연구동향의 분석은 한국무용, 장애인무용, 요가, 무용치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도되다가, 최근에는 초등학교 무용교육, 무용교육학의 연구동향으로 확대되고 있다[6, 11-14]. 이들 연구는 주로 연구자가 초점을 두고 있는 무용교육학 일부 영역의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연도 및 유형, 분석대상,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단순 빈도 제시나 통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동향의 주요 개념들을 살피기에 한계가 있었다[3, 15].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무용교육의 실행중심 연구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무용교육연구의 핵심개념들을 바탕으로 지식구조를 탐색하고 그 동향을 토대로 비판적 쟁점을 발견하여, 향후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무용교육학 학술논문의 발표 현황을 살펴보고 시계열적 관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해 무용교육학의 지형과 과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무용교육연구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향후 무용교육자 양성 및 교

육실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이 연구는 Table 1과 같이 무용교육에 머물고 있는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학문분야의 동향을 살피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무용교육연구 논문을 검색, 수집하여 각각의 핵심어를 단어의 형태로 추출하고 이 핵심어들 간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계산하여 핵심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시각적인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방법이다[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이론을 근거로 텍스트의 내용과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개체들 즉, 추출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축한 후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내용분석 방법이다[17, 18]. 네트워크는 개체들 간의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조화한 연결 관계로 정의하는데[19, 20], 이때 노드는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사물', '집단' 등 관찰 가능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인 단어를 의미하며, 링크는 분석 대상들 간의 연결 관계를 의미한다. 즉 무용교육학과 관련된 '교육과정', '수업', '표현활동'과 같은 개념은 노드이며 이들 간의 연결 관계가 링크로 나타나는 것이다.

Table 1. List of academic research categorie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Feb. 2016)

field code	category	medium	small	minor
G1100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G1101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Philosophy	
G1102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Aesthetics	
G1103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History	
G1104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Criticism	
G1105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Anthropology	
G1106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Notation	
G1107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Movement Analysis	
G1108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Education	

G1109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Therapy	
G1110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Psychology	
G1111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Sociology	
G1112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Dance Kinesiology	
G1113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Choreography	
G119900	Arts and sports science	Dance	Other Dance	
G010403	Arts and sports science	Art	Art Criticism	Dance Criticism

2.2 자료 검색 및 수집

무용교육 학술논문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의 본문, 요약, 목차, 핵심어, 제목 중에서 핵심어(keyword)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검색사이트 KCI(www.kci.go.kr)를 검색주체로 결정하고, RISS와 KISS를 검색보완 사이트로 설정하여 검색어 '무용'을 먼저 검색하고 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관련 개념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이를 통합하였다. 일차적으로 검색보완 사이트로 선정된 RISS와 KISS로부터 관련 학술논문을 검색한 후 KCI에서 검색되지 않은 무용관련 문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 검색 사이트로부터 새롭게 발견된 학술논문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관련이 없는 학술논문은 제외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검색사이트인 KCI를 검색 주체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가장 방대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용교육 관련 국내 학술논문 문헌자료 중 KCI 문헌자료는 178,939편, RISS 문헌자료는 3,383편으로 총 182,322편 중 중복 검색 논문, 실제 연구내용이 무용교육학과 거리가 먼 논문을 제거한 후 최종 선정된 논문 수는 1,162편이었다.

2.3 자료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핵심어 추출이다. 먼저 학술연구의 저자가 제시한 핵심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시 일반적인 절차로 연구제목, 저자부여 핵심어, 목차, 본문, 혹은 요약 등으로부터 핵심어를 추출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다루기 위함이다. 핵심어 추출의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은 삭제하고 본문이나 제목, 목차, 요약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념을 추출하되 분석의 효율성을 위

해 4순위까지만 사용하였다.

두 번째 과정으로 핵심어 정제는 추출된 단어에서 단/복수형, 약자, 띄어쓰기, 품사 등을 교정하는 작업과 추출된 단어가 통제된 용어가 아닐 경우, 통제어 사전을 이용하거나 해당 주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협의를 통해 동의어,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등을 적절한 단어로 변경하였다[16]. 그리고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 중에서 너무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등과 같이 의미 있는 단어가 되지 못하는 단어들을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구체적인 핵심어 추출기준은 첫째, 특수무용, 한국무용과 같이 고유명사는 그대로 두고 무용이 앞에 들어가는 표현에서 무용을 삭제하였다. 이에 무용교육은 ‘교육’, 무용치료는 ‘치료’와 같이 변환하였다. 둘째, 저자가 사용한 핵심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4개만 허용하였다. 셋째, 연구방법, 분석방법, 비교대상 국가 명 등 불필요한 핵심어는 제거하였다. 이에 ‘Q방법론’, ‘질적연구’, ‘현상학’ 등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넷째,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핵심어는 대표 핵심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핵심어의 추출과 정제 사례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Keyword extraction and refinement

authorization key-words	keyword after refining
dance program, education program	program
Laban education, Laban theory education, Laban movement education	movement education
participation in dance, in dance activities	participation
dance major, major female student	major
class satisfaction, living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satisfaction
self-concept, self-identity, ego	self-identity
Korean dance, traditional dance	Korean dance
elementary school dance education, danc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dance education,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performance	achievement level
operation status, class status	status
leader, teacher	educator
teaching method, learning method	method

마지막으로 Excel 2018 프로그램에 정리된 자료를 UCINET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시각화하고 중심성 지수를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물의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어를 찾기 위해 빈도를 중심으로 중심성 지수를 제시하였다. 중심성의 분석지표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

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 있다[21].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른 노드와 많은 링크를 가진 노드일수록 영향력이 큰 노드로 간주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핵심어의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연구한 핵심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다른 핵심어들과 관련하여 연구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2, 23].

3. 국내 무용교육연구의 동향 분석

3.1 시계열 관점의 키워드 분석 결과

KCI와 RISS, KISS를 통해 수집된 문헌자료의 정보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KCI에서 수집된 문헌자료는 저자가 제시한 핵심어가 포함되어 분석에 용이하지만, 1996년 이전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2000년 이상의 자료는 수동으로 수집해야 했다. RISS에서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제공되지만 학술대회 자료집, 학회보, 연수자료집 등 학술논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혼재해있으며, 저자 핵심어를 수동으로 수집해야 했다. KISS는 학술지와의 계약만료 등으로 검색이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완 및 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

Table 3. The number of studies in Dance Pedagogy by year

year	number	year	number	year	number
1968	1	1988	5	2004	36
1972	2	1989	7	2005	30
1973	3	1990	4	2006	41
1975	1	1991	5	2007	38
1976	3	1992	8	2008	52
1977	4	1993	7	2009	41
1978	5	1994	15	2010	53
1979	4	1995	8	2011	43
1980	4	1996	23	2012	62
1981	7	1997	21	2013	67
1982	6	1998	1	2014	75
1983	5	1999	7	2015	59
1984	5	2000	20	2016	89
1985	13	2001	30	2017	70
1986	5	2002	27	2018	104
1987	8	2003	31	2019	7

수집된 자료를 통해 1960년대 후반, 체육교육 전공의 연구진에게 수행되던 무용교육연구자들이 점차 무용, 무용교육 전공의 연구진으로 다양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구간,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개정 구간, 문화예술교육 등장 구간에 연구물의 수의 급증하고 있었다. 196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발표된 무용교육학 학술 논문 최종 선정된 논문 수는 1,162편으로 연도별 발표 추이를 편수로 살펴본 결과, 큰 폭으로 연구편수가 급증한 지점은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으로 나타났다.

무용교육연구물이 게재된 학술지는 각 대학연구소의 논문집이 38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학술지보다는 각 대학 및 교육대학교의 연구소 논문집에 발간된 연구물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1978년 김옥진의 ‘학교무용교육의 문제집’, 이운철의 ‘한국무용 기초교육을 위한 기본형 정립방안-팔의 자세를 중심으로-’가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1권에 실린 첫 학술지 연구물이다[24,25]. 이후 손경순의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무용교육과정모형설계의 방향모색’이 한국무용연구 제1권[26], 김운미의 ‘근대 교육무용사 연구’가 한국체육학회지 제29권 1호[27]에 실리면서 점차 전문 학술지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Table 4. The number of studies in Dance Pedagogy by academic journal (top 10)

name of journal	number
academic journal (Research Institute of Each University)	38
The Korean Journal of Dance	17
Research of Dance Education	15
Philosophy of Movement	6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6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
Physical Education	5
Journal of Korean Dance	5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5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4

무용교육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자료 총 182,322편 중 최종 선정된 유효 논문 수는 1,162편이며 유효 핵심어 수는 3,497개이다. 시계열 분석의 관점에서 국내 무용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수를 연도별로 조사한 후, 1968년 학술논문의 시작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를 Table 5와 같이 5개의 구간(제1구간: 1968년~1979년, 제2구간:

1980년~1989년, 제3구간: 1990년~1999년, 제4구간: 2000년~2009년, 제5구간: 2010년~2019년 현재)로 구분하였다. 국내 무용교육연구의 유효 핵심어를 기반으로 지식구조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Table 5. Analysis of time series perspective

section	year	effective number of papers	effective number of keywords
1	1968~1979	23	45
2	1980~1989	65	151
3	1990~1999	99	252
4	2000~2009	346	1015
5	2010~2019	629	2034
total		1,162	3,497

3.1.1 제1구간(1968~1979): 체육학에 기초한 무용교육의 실천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제1구간에 해당하는 무용교육연구 총 23편의 논문에서 45개의 핵심어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Fig. 1, Table 6와 같다. 제1구간(1968년~1979년)에서는 ‘교육’이 키워드 연결중심성(7)과 매개중심성(42)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가 근접중심성(5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노드와 많은 링크를 가진 노드인 ‘체육과’가 무용교육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10위는 ‘지도’, ‘체육과’, ‘교사’, ‘교육무용’, ‘국민학교’, ‘유치원’, ‘한국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무용교육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면서 체육학을 기반으로 한 지도내용과 체육과에서 행해진 교육무용으로서의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초기 무용교육은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을 중심으로 지도 사례나 내용을 다루는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 연구동향은 ‘체육에 기초한 무용교육의 태동’ 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Table 6. Keyword analysis indicator of section 1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ducation	7	42	403
teaching	3	5	551
physical education	3	3	575
teacher	2	9	410
educational dance	2	1	600
elementary school	2	3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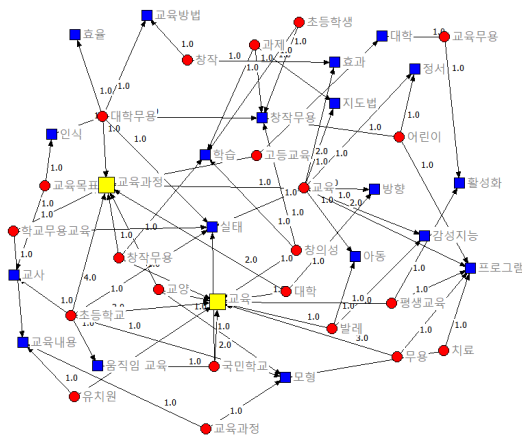


Fig. 3. Keyword network visualization of section 3

Table 8. Keyword analysis indicator of section 3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ducation	30	2127.827	1488
curriculum	14	1001.084	1503
creative dance	10	525.755	1525
elementary school	10	741.018	1516
dance in higher education	8	335.132	1555
university	7	255.458	1539
program	7	340.616	1553
learning	7	206.25	1590
educational contents	6	317.447	1576
movement education	6	440.279	1557

근접중심성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창작무용’, ‘초등학교’, ‘대학무용’, ‘프로그램’, ‘학습’, ‘교육내용’, ‘움직임교육’ 등 모두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전 구간에 비해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수업연구도 증가하였다. 교육과정, 수업모형, 교수모형, 교수방법, 운동학습 등 무용교육의 체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학적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즉, 무용교육에 대한 교급별 대상, 교육내용, 학습,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체계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연구주체가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다른 노드와 많은 링크를 가진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 무용학과 중심의 교육적 접근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구간 연구들의 지식구조들을 살펴본 결과, ‘교급별 무용교육과정의 체계화’의 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1.4 제4구간(2000~2009):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등장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제4구간에 해당하는 무용교육연구 총 346편의 논문에서 1,015개의 핵심어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가 Fig. 4, Table 9과 같다. 제4구간(2000~2009)에서는 ‘교육’ 다음으로 ‘수업’이 연결중심성(51)과 매개중심성(11678.3)에 있어 다른 키워드와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 있어서는 ‘교육’, ‘수업’, ‘교육과정’, ‘한국무용’, ‘프로그램’, ‘창작무용’, ‘초등학교’, ‘교사’, ‘움직임 교육’, ‘발레’ 등 모두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즉흥’, ‘창의성’, ‘교육전문성’, ‘제도’ 등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노드가 도출되었다. 상위 10위는 ‘수업’, ‘교육과정’, ‘한국무용’, ‘프로그램’, ‘창작무용’, ‘초등학교’, ‘교사’, ‘움직임 교육’, ‘발레’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업 사례연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통합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통합예술교육, 교육학과 심리학 등 인접학문의 이론들을 적용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구성주의,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한 무용교육, ARCS, PBL, ICT, VTR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이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 구간 연구들의 지식구조들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등장’의 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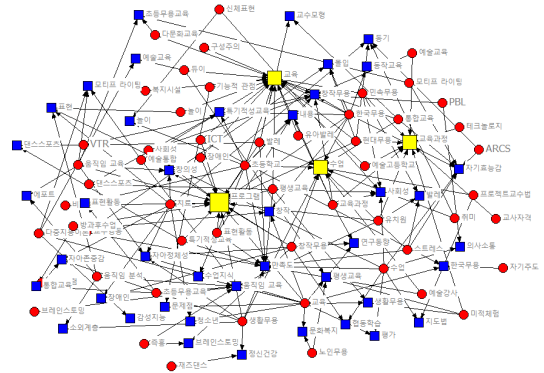


Fig. 4. Keyword network visualization of section 4

Table 9. Keyword analysis indicator of section 4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ducation	68	18354.69	6242
class	51	11678.3	6296
curriculum	29	5937.148	6336
korean dance	28	5357.827	6334
program	27	3575.34	6327
creative dance	25	5092.563	6352
elementary school	24	4369.267	6334
teacher	21	4326.186	6408
movement education	20	3810.567	6437
ballet	17	2178.158	6380

Table 10. Keyword analysis indicator of section 5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ducation	68	18009.92	4834
class	51	11391.53	4882
curriculum	29	5703.19	4925
korean dance	28	5225.072	4926
program	26	3288.54	4920
creative dance	25	4986.259	4942
elementary school	24	4151.586	4923
teacher	21	4164.184	5002
movement education	20	3661.051	5001
infant	18	2212.515	4938

3.1.5 제5구간(2000~2009): 무용교육실천과 학제의 다양화

201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제5구간에 해당하는 무용교육연구 총 629편의 논문에서 2034개의 핵심어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Fig. 5, Table 10과 같다. 제5구간(2010~2018)에서는 ‘교육’ 다음으로 ‘수업’이 연결 중심성(51)과 매개중심성(11391.5)에 있어 다른 키워드와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 있어서는 ‘교육’, ‘수업’, ‘교육과정’, ‘한국무용’, ‘프로그램’, ‘창작무용’, ‘초등학교’, ‘교사’, ‘움직임교육’, ‘유아’ 등 모두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상위 10위는 ‘수업’, ‘교육과정’, ‘한국무용’, ‘프로그램’, ‘창작무용’, ‘초등학교’, ‘교사’, ‘움직임 교육’, ‘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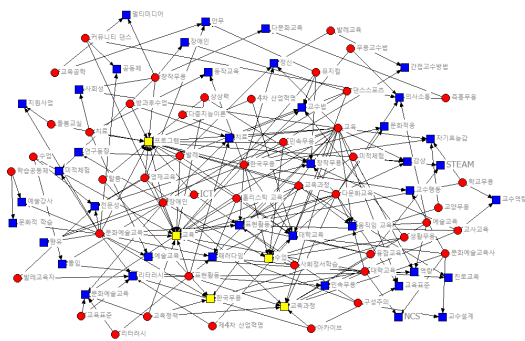


Fig. 5. Keyword network visualization of section 5

특히, ‘인성’, ‘무용소양’, ‘커뮤니티댄스’,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로 주요 영향력 있는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교육자/교사’의 ‘교육 전문성’과 ‘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부상하였다. 제4구간과 상위 10위권의 핵심어가 동일하지만 이하의 순위에 다양한 핵심어들이 등장하였다. 생활무용(13위), 소외계층(14위), 무용치료(18위) 및 다문화교육, 미적체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꾸준히 존재했던 움직임 교육에 소매틱스, 움직임 분석(LMA), 바르테니에프 원리(BF) 등 보다 심화된 원리를 도입하는 연구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 구간 연구들의 지식구조들을 살펴본 결과, ‘교육실천과 학제의 다양화’ 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1.6 전체 무용교육연구의 핵심어 및 지식체계

이상의 구간별 무용교육연구의 핵심어를 종합하면 Fig. 6, Table 11과 같다. ‘교육’이라는 핵심어(연결중심성 103, 매개중심성 25741.95, 근접중심성 21898)를 중심으로 ‘한국무용’, ‘수업’, ‘프로그램’, ‘초등무용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창작무용’, ‘문화예술교육’, ‘통합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핵심어 ‘한국무용’의 연구들은 주로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무용 영역의 연구였으며, 핵심어 ‘초등무용교육’, ‘창작무용’, ‘문화예술교육’, ‘통합교육’의 연구들은 주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무용 영역의 연구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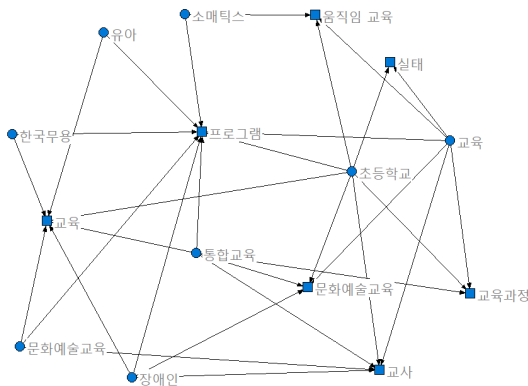


Fig. 6. Knowledge Structure of the Study of Dance pedagogy

Table 11. Keyword analysis indicator of Study of Dance pedagog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ducation	103	25741.95	21898
korean dance	46	9179.39	22071
class	35	5756.016	22078
program	35	7546.403	21968
elementary dance education	32	4581.878	22068
elementary school	32	5814.485	22020
curriculum	30	5254.871	22012
creative dance	29	3892.021	22176
arts & culture education	28	3944.097	22060
integrated education	28	4999.55	21986
teacher	26	5290.625	22096
movement education	26	4396.187	22048
ballet	23	4595.272	22069
dance in higher education	22	3245.76	22190
creativity	21	3268.825	22025
multiculture education	19	2660.2	22079
expressive activity	19	1855.775	22067
satisfaction	18	2018.888	22062
infant	17	2296.854	22158
therapy	17	1136.786	22193

이에 학교무용교육은 학습대상으로 초등학생에, 전문 무용교육은 실기전공으로 한국무용에 치중되어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표현활동’, ‘무용치료’의 경우 핵심어로 등장한 구간이 매

우 짧음에도 종합 분석결과에서 상위권에 도달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실행중심 무용교육연구 행보에 관한 비판적 쟁점과 학문적 정체성 탐색

무용교육연구에 관한 분석결과, 무용학계에서 무용교육학은 일반적으로 실기를 가르치는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용을 가르치는 장소, 대상에 따라 인접 학문인 교육학, 체육학, 스포츠교육학, 예술교육의 학문적 근거와 이론에 천착해있었으며,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무용교육이 독자적인 학문영역, ‘무용교육학’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몇 가지 배경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그동안 무용교육은 현장 실행중심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는 무수히 많은 무용 학술지가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무용교육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실행중심 연구(Practice-Based Research)를 수행했다. 실기기반연구로도 해석되는 실행중심 연구경향은 모든 학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좁히는 현장중심 지식을 탐구하는 이상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장의 실행에 역점을 맞추다 보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실천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성과보다는 현장의 훌륭한 개별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말게 된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국의 무용교육연구들은 수업, 프로그램, 각 무용실기 장르, 초·중등학교급과 관련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많은 무용교육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에 비해 현장의 실행과 연구, 동시대적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들이 모여 교육학적 지식구조와 연결성을 갖추고 단단한 학문적 담론을 보여주는 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둘째, 대표적인 무용교육 이론과 교육모델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였으며, 이상적인 교육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감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국외의 미드웨이 모형, 반성적 수업모형, 국내에서는 ‘하나로’ 수업모형 등 무용교육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교육모델들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론적 개념이나 수업모형이 실천과 간극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28].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의 보편적인 형태보다는 무용교육자의 개인적 역량과 개성에 따라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용교육연구의 동향과 방향성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비판이 부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용분야 동향분석의 연구는 1998년 최초 이은정이 발표한 '무용학 석·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1986-1995'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 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6, 11-14]. 그러나 무용교육학의 전반적인 학문체계를 고려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동안 행해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의 무용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무용교육은 수업과 프로그램, 실기수업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상이 중심이 되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향후 무용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서 기틀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무용교육의 지식체계를 고려한 개념틀의 구축이 요청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교육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계열 관점에서 각 구간별 무용교육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총 182,322편 중 최종 선정된 유효 논문 1,162편에서 유효 핵심어 3,497개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구간을 구분하였다. 제1구간(1968~1979)은 체육학을 기반으로 한 무용교육의 실천, 제2구간(1980년~1989년)은 무용교육학의 태동, 제3구간(1990년~1999년)은 무용교육학의 성장, 제4구간(2000년~2009년)은 통합적 패러다임과 이론의 도입, 제5구간(2010년~2019년)은 영역, 대상, 내용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복합학으로서 무용교육학, 학제간 실천 및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내 무용교육연구의 지식구조와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관련 주제어로 볼 때, 시계열 분석에서도 교육대상과 영역에 대한 현상과 실태가 중복되고 편향된 연구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 전공자 교육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그 외의 취약계층, 특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무용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의 무용교육, 커뮤니티무용, 전공자를 위한 무용교육 등 각 영역과 대상에 대한 고른 연구 성과들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교육실행의 대상과 연구환경, 관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로 미시적인 교육경험과 사례에 국한되어 있기에, 연구의 결과와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연결시키는 실행적 역동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교육의 실행은 있으나, 설계와 평가단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행의 담론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용교육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 거시적인 안목의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무용교육 생태계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함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적인 교육현상에서의 교육 개발, 수행, 경험과 성과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 설계와 실행,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의 개발도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무용교육의 활동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거시 관점의 전수조사와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 역시 무용교육연구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실행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특수성을 주로 연구로 반영하고 있기에 모학문인 '교육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발견하거나, 원리와 관점에 있어서 공통된 혹은 차별화된 담론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국내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층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풀어 나가야 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무용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실행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연구된 무용교육의 담론들이 무용교육학적 학문의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무용교육학자들의 학문적 응집력과 집단지성의 힘이 지속적으로 모여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무용교육학의 지식구조를 정립하고 각 무용교육 지식에 관한 연구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용교육연구들은 기존의 교육학, 체육학, 스포츠교육학의 지식구조를 차용하여 무용교육의 상황에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용교육학 본연의 지식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수의 교육자와 연구자로 인해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무용교육학의 전반적인 학문 영역을 설정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영역에 대한 조망과 연구가 요청된다. 학교무용, 전문무용, 생활무용 영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무용교육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한정된 무용 실기전공에 대한 연구보다는 다양한 학습대상, 환경, 교육콘텐츠

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단적, 횡단적 교육 목표의 설정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무용교육학의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학제 간 교육실천과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교육, 인문적 교육, 구성주의, 융합인재 양성 등 최근 교육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무용치료,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무용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순수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조망과 학제간 융합적 실천을 통해 포스트모던, 문화예술교육,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이후의 무용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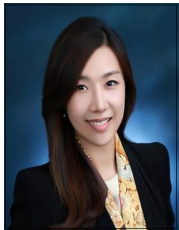
- [1] B. R. Kim. (2008). *A study of analysis about present state of Korean graduate dance department curriculum: focus o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 J. H. Chae. (2008). *Research for specialized education in university dance education curriculums: based on case studies of American dance departm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3] H. D. Jung. (2018). *Research trends of dance: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4]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2016). *List of the classification of academic research*. NRF(Online). <https://www.nrf.re.kr>
- [5] Y. J. Kang & W. J. Kim. (2013). A study on the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research trend of dance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4), 415-424.
- [6] I. S. Kwon. & G. I. Jung. (2016). An analysis on educational dance research trends in Korean research journal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747-765.
- [7] Y. O. Kim. (2002). An analysis of studies of dance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4), 351-358.
- [8] J. Y. Kim, J. E. Yoon, A. R. Hong & S. M. Lee. (2017). Finding the position of school dance: A review in accordance with policy and public law through the stakeholder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s Pedagogy*, 24(2), 79-100. DOI : 10.21812/kjsp.2017.04.24.2.79
- [9] M. J. Jung. (2011). *Exploring an alternative direction of university dance curriculum in convergence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10] E. J. Cha & C. H. Kim. (2018). Implementation of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governance support projects under social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Focused on dance program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7(2), 445-457. DOI :10.23949/kjpe.2018.03.57.2.31
- [11] B. M. Kim & J. A. Yoo. (2014). Exploring of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dance education in Korea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0(3), 137-149.
- [12] J. O. Bae. (2014).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of dance for disabled people. *Journal of Korean Dance*, 32(2), 129-148.
- [13] E. J. Lee. (1998).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in the dissertations of M.A. and Ph.D. degrees in dancing research: From 1986 to 1995*.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14] H. K. Lee. (2014). Analysis of the trend of dance therapy research: Focus on domestic doctoral dissertation. *The Journal of DSDH*, 35, 129-147.
- [15] H. J. Kim. (2015). An analysis on domestic research trends of dance education: Focusing on major journals.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2(1), 181-190.
- [16] S. S. Lee. (2012).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Seoul: Nonhyung.
- [17] M. L. Doerfel & G. A. Barenett. (1999).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4), 589-603.
- [18] J. U. Yoon & J. H. Park. (2015).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content analyzing of qualitative research in adapted physic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5), 877-889.
- [19] J. A. Danowski. (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2, 198-221.
- [20] C. S. Wagner & L. Leydesdorff. (2005). Net-work Structure, self-organization, an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science. *Research Policy*, 34(10), 1608-1618.
- [21] L. C. Freeman.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 [22] B. J. An & I. Y. Choi. (2016). A study on oversea research trend in dance/movement therapy using keywords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5(3), 1053-1062.
- [23] J. U. Yoon. (2017). Research trends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using knowledge network analysi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5(1), 121-133.
- [24] O. J. Kim. (1978). Problems of school dance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1, 29-34.
- [25] U. C. Lee. (197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asic shape for the basic training of Korean

dance—Focused on the position of arm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1, 15–27.

- [26] K. S. Son. (1982).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ance education and direction of design of dance cours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Dance*, 1, 47–56.
- [27] W. M. Kim. (1990). A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education and da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9(1), 1097–1113.
- [28] J. Y. Kim & A. R. Hong. (2018). A renewed dance pedagogy: ritical issues of practice—based research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2018(10), 275–275.

김 지 영(Ji-Young Kim)

[상위]



- 2001년 2월 :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무용학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체육과(체육학석사)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체육학박사)
- 2013년 6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후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경영, 문화예술교육
- E-Mail : artsedu@smu.ac.kr

홍 애 령(Ae-Ryung Hong)

[상위]



- 2006년 2월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무용학사)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박사)
- 2016년 7월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후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 교수전문성
- E-Mail : innodance@naver.com